

## 대만, 중전기 산업 현황

중전기 산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이자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생산설비 및 테스트설비에 대한 투자가 클 뿐 아니라 제품 설계 및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내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술변혁이 비교적 느리고 제품 라이프사이클도 비교적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품 특성상 안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요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만 경제부 공업조사통계보고에 의하면 대만의 중전기 생산업체수는 모두 863개사에 이르며 종업원수는 3만4,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전자공업동업공회에 의하면 비교적 규모가 큰 주요 중전기 제조업체로는 발전기 생산업체 19개사, 전동기 70개사, 변압기 87개사, 개폐기 81개사, 배전기기 110개사, 정류기 41개사, 전력콘덴서 19개사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97년 대만의 중전기산업 생산액은 NT\$ 599억3천만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성장했다. 내수액은 NT\$ 274억2,600만으로 2.2% 성장해 '96년 -1.9%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현재 대만의 각종 중전기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 외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대만의 중전기 관세율이 높은 것은 WTO 미가입국이기도 하지만 주요 수요처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기 때문으로 WTO 가입과 함께 대만이 정부조달협정 정식 가입국이 되면 관세율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급격한 관세인하

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경제부 상품검험국의 수입상품검사에 합격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대부분 품목은 중국산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대만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최대 경쟁대상국은 고급품 분야에서 일본이며 중급품의 경우 대만산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8년의 경우 기록적인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일본업체의 수출마케팅 강화로 일본제품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지속 늘어났으며 한국산 역시 원화 가치하락에 힘입어 '97년대비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동남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된 대만시장에 대한 각국의 마케팅 강화로 제품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채산성도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대만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우 예전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었으나 동남아산도 마찬가지로 현재 대만 바이어들의 주요 구매결정 포인트는 가격보다는 품질과 납기준수 여부가 되고 있다. 특히 중전기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안전성과 신뢰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품질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전기 주요 수요처가 臺電公司를 비롯해 정부 및 국영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요구된다. 대만정부 공공공사위원회(PCC)는 최근 정부

조달사업 프로젝트를 담은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으로 이번에 공공공사위원회가 제공할 사이트명은 <http://www.pcc.gov.tw>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수십억달러 규모 대만정부의 물자구매계획, 공사입찰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 루마니아, 변압기 수요 활발

루마니아의 전력사정은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장점은 있으나 전압이 180~250V로 일정치 않은 점이 단점으로 정교를 요하는 일부 전기제품 등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를 부착함이 바람직하며 표준전압은 220V이며 50Hz이다.

향후 전력소비량은 루마니아 불경기가 '99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루마니아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아주 낮은 실정이라서 경제가 성장케도로 진입되면 향후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 국민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3,416kW/h로 체코의 5,200kW/h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루마니아의 최대 변압기 생산메이커는 Electroputere Craiova SA사인데 이 회사는 고용량 변압기를 사실상 2~3년전까지는 독점 생산해 왔으며 변압기 최대 수요처인 루마니아 국영전력과 밀착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계 주요 중전기메이커인 ABB사가 루마니아에 현지법인인 ABB Romania사를 설립해 3년전부터 현지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Electroputere 독점시장을 급격하게 잠식하고 있는데 ABB Romania사 루마니아 중형규모 변압기시장의 30%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루마니아 중전기 수요자들은 ABB Romania사가 양질의 제품을 경쟁사인 루마니아의 Electroputere

제품에 비해 가격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ABB 및 Electroputere는 '98년 1~8월 기간중 250개 중형 변압기를 국영전력인 RENEL에 판매했으며 47개 변압기를 민간기업에 판매, 가설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루마니아 중전기시장의 리딩 브랜드는 전통, 품질, 국영전력에의 납품관계 등을 감안할시 Electroputere 제품이었지만 고용량 중심이어서 수입개방이후 소용량, 경량변압기를 사용하는 소형민간기업들이 늘어나면서(예: 제빵공장 등) 수입품에 시장을 점차 잠식당하고 있다.

민간 중소제조공장들의 입장에서는 변압기 설치 장소, 건물 등을 별도 건설하거나 렌트하는 대신 기존건물 일부 스페이스에 변압기를 설치가 가능한 수입변압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가임대주들도 이러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변압기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산 변압기가 좋은 가격/품질 구성을 갖고 있다면 ABB Romania사는 한국산을 OEM으로 구입하는데 관심이 있다.

Electroputere사는 고용량의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으나 시장수요가 있을 경우 중간용량의 변압기도 생산하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Electroputere의 중저용량의 변압기 생산공장은

루마니아 주요 공업도시인 Craiova에 인접한 소도시인 Filiasi에서 위치하고 있다.

수입은 연간 60% 정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루마니아의 전력 배전시설 및 기술이 낙후되어 순간적으로 정전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전압이 일정치 않아 정밀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변압기, 안정기, 소형 자가발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입관세(HS 8504 21)는 없는데 이는 루마니아 정부가 전력공급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력

기자재에 대해 정책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루마니아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임시조치로 거의 전품목에 대해 6% 수입과징금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입장벽도 없으나 수입업자는 이 제품이 루마니아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라는 국영전력 RENEL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ISO 9001 인증이 요구되고 있다.

## 對 폴란드, 전기부품 수출 有望

폴란드의 전기부품 및 장비 수입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기·전자 부문은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중의 하나로 국내 생산이 총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요증가 품목은 조명기기, 자동차용 전기장치 및 시그널 전달기기를 선두로 전기모터, 발전기, 트랜스포머, 전기공급 및 제어기기, 전선류, 축전지, 1차 및 2차 전지 등 전기산업의 전부문에 걸쳐 있다.

수요급증 배경은 폴란드가 체제전환을 한 후 산업현대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전기관련 부품 및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의 1인당 전력소비 수준이 '97년 현재 3,205kWh로서 인근 서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매우 밝다.

폴란드 업체의 전기부품 및 장비의 생산 증가율만 보더라도 산업 평균인 12.5%보다 높은 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전체

산업에서 전기산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2.2%, '96년 2.3%, '97년 2.7%로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국내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수입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전기부품 및 장비수요의 50%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실정이고, 특히 전력 송배전설비 등의 경우에는 수입의존도가 60% 이상이다.

폴란드 정부도 수입된 전기부품 및 장비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폴란드에 직접 투자한 해외업체들의 생산 확대를 통한 재수출, 폴란드 전기조립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증가가 폴란드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폴란드에서 전기부품 관련 최대 생산업체는 Elektrim사가 있는데 전기기계 및 장비, 케이블 부문과 관련된 부품만을 생산하고 기타 품목의 경우 수입후 국내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폴란드에 직접 투자 진출한 외국 업체로는 ABB,

지멘스, 필립스 등이 있으나 전기공급 시스템, 터빈, 전기엔진 등의 발전, 조명 등에 치중하고 있다. 발전설비 및 송전 관련장비의 경우 금년에는

수입이 국내 생산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폴란드의 주요 전기부품 및 장비수입 현황

(단위 : US\$ 천, %)

품 목	'98. 1~9	증 가 율
Switching/Protecting Apparatus	237,114	15.0
Thermonic/Cold Cathode, Protocathode Valve/Tube	174,511	54.8
Insulated Wire/Cable/Conductor	173,762	16.6
Transformer, Static Converter, Inductor	153,412	20.2
Control Board/Panel/Console	88,128	2.9
Filament, Discharge Lamp, Ultr-Violet Lamp	74,103	10.8
Motor, Generator	59,991	28.1
Electric Lighting, Signaling Equip.	51,646	28.3
합 계	1,012,667	

[자료 : 폴란드 중앙통계청]

## 美, 형광등용 안정기 수입 증가

미국의 형광등용 안정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업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US Industry and Trade Outlook 1998' 등에 따르면 미국내 안정기 수요 규모는 13억2,9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43%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7년중 안정기 수입액은 5억7,700만 달러로 '96년에 비해 16.6%나 증가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제조비가 저렴한 멕시코, 중

국 등인데 '97년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액은 3억 4,9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수입시장의 60.6%를 점유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도 '97년 1억1,7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은 '97년 500만 달러에 그쳐 '96년에 비해 44.2%나 감소했다.

미국내 안정기 제조회협회(CBM)에 따르면 안정기 시장에서는 마그네틱 안정기와 전자식 안정기가 각각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식

안정기로의 품목전환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 시장변화 배경으로는 미국 정부가 전기소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분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정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게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내 형광등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저렴한 가격대의 절전형 안정기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따라 우리

나라산의 대미 수출전망도 비교적 밝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이 미국의 안정기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표준규격인 ANSI 획득은 물론 미국내 전체 수요의 25%에 달하고 있는 개체 수요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美, 전력 중개장치 개발

American Electric Power(AEP), Westinghouse Electric,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들이 개발한 3,000만 달러 단일화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로에 흐르는 물을 밸브로 제어하는 것처럼 전기를 배급하고 있다.

변전소에 설치된 이 장치는 설비들이 그들의 배급망을 통하여 전류를 순간적으로나 연속적으로 제어하도록 하여 전송선과 전력망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전송변전소의 책임자인 Aty Edris에 따

르면 전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변전소로부터 연장된 전기저항을 변환시킨다고 한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승압시 전선에 전류를 가하면 길이에 상관없이 미세한 전류변화를 볼 수 있다(길면 길수록 저항도 커진다). 첫 번째 장치는 6월 켄터키의 AEP 변전소에 설치되었다. 다음은 정전시 사용될 초전도 자석과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에 부착될 것이다. AEP는 EPRI와 다른 회사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다.

## 중국, 발전소 건설에 300억弗 투입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가 다소 주춤거리는 있으나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율 8%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어 적어도 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동

안 약 2,500억元(약 30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도시 및 농촌의 전력망을 건설할 계획인데, 핵심은 바로 발전소 건설이다.

자금은 국내 조달 및 외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조달과 관련 금년에 발행한 1천억

원에 달하는 국채의 일부를 이 계획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은 국내에서 공급받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품질이 열악한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할 계획이다.

수입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110kv급 지중케이블과 알루미늄 피복의 동심알루미늄 연선, 광케이블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현재도 연간 수입액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며, 향후 전력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보유한 수력에너지 저장량은 6억8천만 kW, 이중 개발 가능량은 3억7,600만kW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현재는 겨우 15% 정도만을 활용할 정도로 이용도가 낮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7천만kW, 2010년에 1억2,500만kW까지 수력발전량을 끌어 올리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계획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는 23개소로 여기에 약 4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자본이 유입됐다.

전력망 구축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자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등도 많이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중장기 전력 수급 전망

(단위 : 억kWh)

	1995		2000		2010	
	생산량	구성비	예 측	구성비	예 측	구성비
총 전력 생산량	10,077	100	14,000	100	25,000	100
- 화 력	8,043	79.8	11,650	83.2	19,192	76.8
- 수 력	1,906	18.9	2,200	15.7	4,808	19.2
- 원 자 력	128	1.3	150	1.1	1,000	4.0

[자료 : 中國能源發展報告 1997년]

현재 중국내 발전소건설 프로젝트가 대부분 BOT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조세제도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지연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기도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게 기존 발전소

의 운영권만을 임대해 주는 TOT 방식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참여 방식도 BOT 또는 TOT(Transfer-Operation-Transfer) 방식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베네수엘라, 변압기 수출 요망

베네수엘라는 전력생산은 풍부하나 누전율이 30% 이상에 달하는 등 전력공급이 매우 불안정해 모든 산업현장에서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가 꼭 필요하다. 또한 자국산 변압기의 품질이 떨어져 수요자들은 외국산을 선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 석유회사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97년부터 변압기 수입이 급증해 '97년 이전까지는 연간 시장규모가 4천만 달러였으나 '97년부터는 약 9천만 달러 시장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 석유회사의 투자계획은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향후에도 변압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산업부문별 변압기 수요를 보면 전력산업

부문이 26.7%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부문이 13.7%, 농업부문이 10.4%, 광업부문이 10.4%, 수송부문이 9.4% 순이다.

변압기의 관세율은 15%이며 부품 관세율은 10%이다. 여기에 항구세 2%, 기타 통관수수료, 관련제세 등으로 1~2%가 추가된다.

세금 및 수수료의 합산금액에 16.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으며 중남미 주변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관세인하를 노린 선진국 제품의 우회 수출이므로 아시아 국가로의 수입은 매우 적어 우리 업체의 시장개발 여지가 많다.

## 방글라데시, 전력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PDB)는 날로 증가하는 국가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 주도로 일련의 전력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시행한다고 방글라데시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2001년까지 최소한 1,700MW의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Financial Express지가 전했다. 방글라데시의 세부 개발계획은 민간기업 주도로 1,100~1,200MW의 발전

설비를 추가시키고, 나머지 500~600MW의 전력은 PDB가 건설하는 공영 발전소에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1,700MW의 설비용량이 추가되면 방글라데시의 전력수급은 오는 2001년에는 국가의 전체 발전량이 3,700MW에 달해 국가 전력수요인 3,200MW로부터 500MW의 잉여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Khulna의 남서부 지방에 건설될 110MW 규모의 바지선(barge-mounted) 발전소

는 이미 지난 9월에 발전을 시작했고, 또다른 민간 전력부문의 바지선 발전소가 올해 12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그리고 추가로 2기의 발전 프로젝트가 Narayanganj 남동부 지방에서 6개월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에너지전력부는 미국의 전력회사와 Dhaka로부터 북서 방향으로 342km 떨어진 Haripur 지역에 350MW 규모의 지상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다른 지역에 총 설비용량이 350MW인 4기의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다른 미국 회사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공공부문 발전개발 계획은 오는

2001년까지 국내 여러지방에 총 설비용량 700MW의 최소 5기의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며” 현재 방글라데시의 발전설비 용량은 3,091MW이지만 실제로 발전이 가능한 용량은 1,900~2,000MW이며 수요가 피크일 때의 전력은 2,300MW 정도이다. 그래서 정부는 발전설비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회기년도(1998년 7월~1999년 6월)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의 연간 개발예산의 10%가 넘는 125억 taka화(미화 2억5,800만 달러)를 발전사업부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재정부의 예산실 담당자가 전했다.

## 미국 CMS 에너지사, 인도 발전 & LNG 프로젝트 수주

미국의 CMS 에너지사는 미국 Unocal사의 자회사인 UBL(Unocal Bharat Limited), GIL(Grasim Industries Ltd : 인도 Birla 그룹의 일부), Perth 소재 WPL(Woodside Petroleum Ltd.) 및 독일의 SPV(Siemens Project Venture) 등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16억 달러에 이르는 인도의 공개입찰에서 발전 및 LNG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은 인도 Tamil Nadu 지방의 Ennore에 1,886MW급 발전소를 개발, 건설, 소유 및 운영하는 것과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받아들여 다시 가스로 만든 다음 저장하는 시설의 건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CMS 컨소시엄은 관세를 포함하는 최저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 남부 인도의 Tamil Nadu 정부를 대표하는 주정부 기구인 TIDCO(Tamil Nadu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하여 낙찰되었다.

이번에 낙찰된 컨소시엄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룹들이 제출한 입찰서를 일차적으로 선별한 후에 이들 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낙찰 컨소시엄의 참여지분은 Birla가 20.75%, CMS 에너지가 20.75%, Siemens가 20.75% Unocal이 17%, Woodside Petroleum사가 20.75% 등이다. 재정적 마감은 2000년 말까지 완료되고, 공사는 2001년 4월에 시작되며 상업운전은 2003년 중반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 日, 人體감지 超輕量 조명기구 개발

일본에서 적외선 및 초음파 센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일본 세라믹(鳥取市)이 인체를 감지하는 초경량 조명기구를 개발했다. 보통 이 회사의 센서는 부품으로서 가전 및 자동차 업계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시세이도디자인(鳥取市)과 공동으로 인체감지센서 부착 자동조명기구 '구룽빔라이트'를 새롭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예전 제품의 각도는 앞에서 30~60도, 거리는 3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야만 켜졌으나 이번에 개발

된 제품은 각도 180도, 거리 6미터까지 감지하여 불이 켜진다. 특히 고베 지진후 판매가 호조로, 이미 약 5만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전 제품은 각각 높이 약 20, 폭 4, 두께 6센티미터이고 무게는 약 300그램으로 가격은 1만 2천엔이었다. 일본 세라믹사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좀더 작고 짙 보급형 개발에 힘써 올봄에 개발, 지난 7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 日, 光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

일본에서 광해저 케이블의 생산능력을 증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선과 케이블의 수요는 전력, 육상통신, 건설과 주택, 자동차, 전기등 거의 모든 용도에서 침체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광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광해저통신망의 정비가 급피치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국제정보전송량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광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1회선당 건설비가 저렴해져 코스트로 위성통신과 대항할 수 있게 된 점도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 대양해저전선과 히타치전선 등 일본 2대 업체는 모두 봄을 맞고 있다. 양사는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5배의 설비증강을 추진중이다.

일본 해양은 광해저 케이블의 품질향상과 증산 대응을 목적으로 북큐슈사업소에 신예설비를 도입하고 '95년부터 가동했다. 연간 2만킬로미터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歐美間(대서양), 美日間(태평양) 등의 수주로 '99~2000년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북큐슈사업소안에 공장을 1개동 추가건설, 생산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인 인너 라인 2개 외에 크레인, 저선조동 주변설비도 정비한다. 총 투자액 40억엔 정도이며 '99년 6월 가동할 계획이다. 이같은 증강으로 인해 라인은 4개에서 6개로 증강된다.

한편, 히타치전선은 20억~30억엔을 투자하여 미나토공장의 생산능력을 조속히 일본대양과 같이

1.5배로 증강한다. 생산능력은 명확하지 않지만 '99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배인 50억엔

이상으로 증가, 연간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90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 러시아 사할린 발전소, 일본에 전력수출 촉진

일본 마루베니사와 러시아의 RAO EES, 전력 수출 프로젝트 관련 협정에 서명 일본의 무역회사인 마루베니사는 러시아의 EES 켄냐가 주관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전력의 일부에 대하여 일본에 수출도 꾀하고 있는 '통합에너지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에 대한 양국의 협정 서명은 동경에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RAO EES의 Anatoly Chuais가 참석했다. 그는 이번에 협정서의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Energomost 또는

에너지 다리(Energy Bridge)라 불리는 120억 루블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밝혀졌다고 Itar-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기금은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 남부에 2기의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1기는 천연가스 발전소 그리고 1기는 석탄 발전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할린 섬에서 일본의 북단 섬인 홋카이도까지 고압의 송전선을 해저로 연결할 계획이다.